

## ‘유서’ 써놓고 다니는 열정적인 사진작가의 특별한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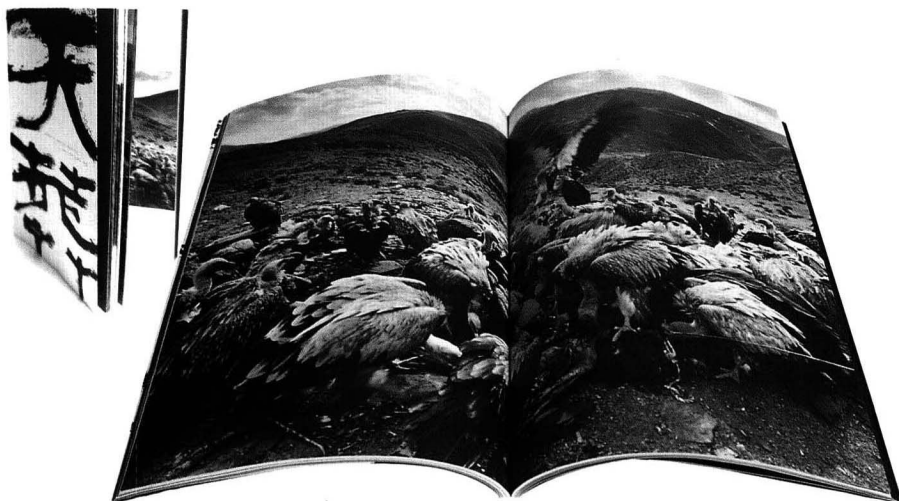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는 테헤란의 장례의식을 취재하러 온 취재팀의 엉뚱한 이야기를 펼쳐준다. 어쩔 수 없이 마을 최고령의 할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특별한 의식을 카메라 안에 담는 것이 취재팀의 최대 임무. 1997년, 2000년 사진작가 박하선 씨는 티베트에서 영화 속 취재팀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린다. 그가 티베트를 방문하면서 독특한 장례를 촬영한 후일담은 영화보다 더 흥미롭다. 촬영을 거부하는 천장사는 피문은 칼을 들고 살기어린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마침내 시신의 살점과 피가 그의 얼굴에 묻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천장天葬》은 이색적인 책이다. 시신 곁에 몰려드는 독수리들의 모습은 엽기적인 동시에 잔인하다. 그 안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시신의 모습과 시신을 뜯어먹는 독수리들의 생명력이 그로테스크하게 얽혀 있다.

천장은 인도에서 시작되어 티베트에서 뿌리를 내린 장례의식이다. 사람이 죽은 후 스님들은 사원 앞에 모여 염불을 외는 ‘포와’ 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시신의 머리를 드러내 영혼이 빠져나갈 시간을 준다. 이후 시신은 땅과 하늘이 맞닿은 천장터로 향한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떠난 육신은 못 생명에게 자신의 살과 뼈를 내준다. 이 의식에서 장의사 구실을 하는 천장사는 독수리가 시신을 먹기 좋도록 살을 발라놓는다. 이 의식은 불교의 네 가지 근원적 물질(땅·물·불·바람)로 시신을 회귀시키는 의식 가운데 하나이며 독수리를 타고 고향인 중음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떠나는 자는 선택, 미련의 과정 없이 남은 육신을 곱게 뺨아 누군가에게 내놓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못된 사람의 시신은 독수리들도 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장례의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카메라를 들이대야 하므로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사진작가 박하선 씨의 열정도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의 사진은 ‘죽어 있지만 살아 있는’ 시신과 독수리들의 매서운 날개짓을 소름끼치도록 표현했다.

이 책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세계적인 사진 콘테스트인 월드프레스포토에서 데일리 라이프 스토리스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청연 기자



《천장 天葬》 박하선 사진/커뮤니케이션즈 와우/120쪽/값 27,000원